

제 목	국 문	일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비만 실태		
	영 문	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한승태 ¹ , 최중명 ¹ , 윤태영 ¹ , 조우현 ¹ , 박순영 ¹ , 유동준 ¹ , 송종일 ² 1.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2. 한국체육과학연구원		
	영 문	Seung-Tae Han, Joong-Myung Choi, Tai-Young Yoon, Woo-Hyun Cho, Soon-Young Park, Dong-Joon Lew, Jong-Il Song <i>Dept of Preventive Med, School of Med, Kyung Hee Univ</i>		
분 야	역 학	발 표 자	최 중 명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 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○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5 년 11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비만에 대한 정의는 빈번하게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체지방의 과잉상태이며, 단순한 하나의 질병이라기 보다는 대사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질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. 그동안 비만은 서구사회에서 흔하게 문제가 되는 영양장애의 하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서구화로 섭취열량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활동량은 감소되어 비만율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.</p> <p>이에 저자들은 서울시내 소재 K병원에서 1994년도에 실시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정기 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, 1992년 및 1994년의 3개년 측정치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층의 성별, 연령별 비만 유병율을 알아내어 1996년도에 실시될 정기건강진단시 적용할 수 있는 비만판정 기준치 설정 및 비만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K병원에서 1994년도에 실시되었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정기건강 진단 자료 중 신장, 체중치를 이용하여 BMI(Body Mass Index) 및 비만도를 산출하였으며, 일본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비만판정기준을 적용하여 1990년, 1992년 및 1994년의 성별, 연령대별로 비만 유병율을 산출하였고, 조사대상의 직종을 초중고 교사군, 대학교직원, 병원근무자 및 일반직 공무원의 4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.</p> <p>측정자료는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하여 집계 처리하였으며, 모든 분석은 성별, 연령대별 및 직종별로 시행하였고, SAS/STAT statistical package 6.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1. 조사대상은 1994년 기준 4,044명(남자 2,856명, 여자 1,188명)이었으며, 연령대 별로는 20-29세가 539명(남자 198명, 여자 341명), 30-39세 1,509명(남자 1,081명, 여자 428명), 40-49세 1,149명(남자 872명, 여자 277명), 50-59세 742명(남자 610명, 여자 132명), 그리고 60-65세가 105명(남자 95명, 여자 10명)이었다. 직종별로는 초중고교사가 557명(남자 326명, 여자 231명), 대학교직원이 1,041명(남자 794명, 여자 247명), 병원근무자 653명(남자 262명, 여자 391명),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1,793명(남자 1,474명, 여자 319명)이었다.

2. 각 측정치에 대한 성별, 연령대별 평균치를 보면, 남자의 경우 신장은 20대군이 $170.0 \pm 5.6\text{cm}$ 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되어 60대군에서 $168.6 \pm 4.7\text{cm}$ 로 보였으나 체중은 20대군이 $64.6 \pm 8.3\text{kg}$ 에서 50대군 $66.7 \pm 8.2\text{kg}$ 으로 50대까지는 증가되나 60대군에서는 $63.5 \pm 15.1\text{kg}$ 으로 감소되었다. BMI는 체중과 같이 20대군 22.3 ± 2.5 에서 50대군까지 증가하다가 60대군에서 감소를 보이거나 20대군보다는 높게 나타나며, 비만도 역시 20대군 101.6 ± 11.2 에서 50대군 107.4 ± 12.0 으로 증가되다가 60대군에서 105.8 ± 11.2 로 감소되었다.

여자의 경우 역시 신장은 20대군이 $159.3 \pm 4.5\text{cm}$ 로 제일 크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감소되었으며, 체중은 20대군 $51.5 \pm 5.9\text{kg}$ 에서 50대군 $58.1 \pm 6.7\text{kg}$ 으로 증가되고, BMI는 20대군 20.3 ± 2.0 에서 50대군 23.4 ± 2.4 로 증가되고 비만도 역시 20대군 92.1 ± 9.1 에서 50대군 106.3 ± 10.9 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.

3. 일본비만학회에서 제시된 비만판정기준에 의한 비만 유병율을 보면, 남자의 경우 1990년에 비만이 9.8%, 1992년 10.6%, 1994년에는 12.0%로 증가되고 있으며, 여자의 경우 1990년 3.4%, 1992년 4.2%, 그리고 1994년에는 4.2%를 보였다.

1994년 결과에서 연령대별로 보면, 남자는 60대군이 17.9%로 제일 높고 다음 40대군이 15.1%를 보였으며 20대군이 6.6%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. 여자의 경우 역시 60대군이 10.0%로 제일 높고, 다음이 40대군으로 9.5%, 그리고 20대군이 0.3%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.

직종별로 보았을 때는 남녀 모두 대학교직원군이 남자 13.8%, 여자 7.4%로 제일 높았고, 남자는 초중고교사군이 9.8%로, 여자는 일반직 공무원이 2.8%로 제일 낮았다.

4. 직종별 BMI의 연령정정 최소자승평균을 비교한 결과, 남자에서는 대학교직원이 23.8 ± 0.1 로 제일 높았고 초중고교사군이 23.2 ± 0.2 로 제일 낮았다. 여자의 경우 역시 대학교직원군이 21.9 ± 0.2 로 제일 높았고 초중고교사군이 21.2 ± 0.2 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.

4. 고찰

우리나라 성인의 체격에 맞는 정확한 비만판정기준 설정 및 비만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